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정부 합동평가  
정량지표 보고회 개최

정읍시가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3차 정량지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실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도내 최상위권 성적 달성을 목표로 세부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8월 기준 달성률이 80% 미만인 14개 지표 담당 부서장 10명이 참석해 소관 지표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적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유입사무와 국가 주요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정읍시의 평가 대상은 정량지표 65개, 정성지표 8개로 구성돼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8회 청년친화  
현장대상' 종합대상 수상

고창군이 청년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청년친화현장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청년친화현장대상은 (사)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관)와 청년친화현장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고창군은 2024년 소통대상에 이어 2025년 종합대상을 수상,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민선 8기 '청년 살이 고창 시대'를 비전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일자리·창업 지원으로는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창업 스타트업 단지 운영, 창업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곰소젓갈축제 준비 완료

19~21일까지 3일간... 곰소젓갈 이용한 먹거리 · 볼거리 · 즐길거리 선사

전국 5대 젓갈시장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젓갈의 산지 부안 곰소에서 제17회 부안 곰소젓갈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는 곰소젓갈센터 앞 특설 행사장에서 바다와 노을, 그리고 맛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곰소젓갈을 이용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모아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프로그램으로 전국 풋볼이데오, 가족대항 도전 골든벨, 왕새우잡기 체험 등 공연과 흥미로운 체험행사가 병행 진행되며 야간 문화행사로 EDM과 4인조밴드가 함께하는 곰뱃축제로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특별행사로는 곰소젓갈요리 런칭쇼, 곰소 카라반 캠핑여행을 통해 곰소젓

갈 요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전국 캠핑 매니아들을 유치하여 부안 곰소 앞바다의 붉은노을과 밤하늘의 풍광을 즐길수 있도록 캠핑 매니아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과 함께는 "곰소마블"이라는 스텝프루어 행사로 미션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함께 추천권을 증정, 9.21(일) 17:00 행사장 스테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행운의 금한돈"을 증정할 계획이다.

관광객 대상으로 축제 기간 중 젓갈과 액정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촉진과 함께 곰소젓갈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축제 첫날은 개막 축하공연으로 100인의 난타와 타악 퍼포먼스 팀의 대북연주가 무대를 채운다. 무용팀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황아리의 비밀"이 하

나되어 만들어가는 곰소젓갈과 함께 여는 미래를 표현하며 강렬한 퍼레이드를 장식한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외부 방문객 유치를 통해 소비촉진을 겨냥한다. 11:00~12:00 서울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고향방문 행사를 유치하여 1,700여명(관광버스 43여대)이 일시에 부안 곰소 축제장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고향방문 출항인 맛이를 위해 곰소의 맛과 멋을 즐길수 있도록 다채로운 먹거리 등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젓갈전국가요제, 젓갈비빔밥 퍼포먼스, 어린이전국댄스페스티벌, 전국꽃놀이 대회 공연, 체험, 경연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폐막행사로 젓갈 화합 한마당을 끝으로 축제의 막이 내린다. /부안=김석진 기자

#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안군 권익현 군수, 김홍국 새만금위 민간위원장 면담 건의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지난 16일 서울 하림그룹 본사에서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한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건의하고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올 연말 예정된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결정을 앞두고 권 군수가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쏟는 강한 의지와 절박함을 다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권 군수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광역 공약인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실현하고, 모두가 잘 사는 지역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농생명융합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임을



강조했다.

이어 "농생명융합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부안군이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홍국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산업 인프라에서 소외된 부안군의 상황과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부안군,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남북2축도로 · 만경6공구 지자체 결정 법적 대응 나서

부안군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이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주민 생활권·행정서비스 불편과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을 전제로 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새만금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관할 결정은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계관계 및 관할 구역 행정효율성과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결정은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군민의 생활권과 권익을 지키고, 새만금 개발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새만금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 AI 기반 지방세 수기고지서 자동화... 도내 최초

정읍시-NH농협, AIS수기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시스템 공동 개발

정읍시가 전북 지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방세 수기고지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행정 혁신에 나섰다.

시는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와 함께 AIS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수기고지서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해야 해 담당 공무원이 연간 200여 건의 정보를 일일

이 입력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은 고지서를 스캔한 뒤 문자와 숫자로 변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7일 이상 걸리던 수납처리 기간을 하루로 단축시켰다.

핵심 기술은 AI 기술인 지능형 문서처리(IDP·Intelligence Documents Processing)로, 정형 문서뿐만 아니라 비정형 문서도 자동 분류하고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도 처리

를 통해 수납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시와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부터 수천 건의 고지서를 이미지화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하수 시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절약된 인력과 시간을 시민 복지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2025 국민공감대상 '축제관광도시' 부문 수상

고창군이 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국민공감대상'에서 '축제관광도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국민공간 캠페인은 수많은 경영전략 및 브랜드 가운데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다.

고창군은 올가을 '2025 세계유산축제'와 '제52회 고창모양성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축제 분위기로 물든다. 두 행사는 고창의 역사와 세계적 가치를 집약한 대표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제52회 모양성제(10월29일~11



월2일)는 조선 단종 원년에 축조된 고창읍성의 축성 정신을 기리는 전통축제에서 출발해, 답성놀이·강강술래 등 민속 프로그램과 젊은 세대 맞춤형 공연·체험, 먹거리·농특산물 판매까지 아우르는 세대 공감형 대표 축제로 발전했다. 군민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도 열려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경

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2025 세계유산축제(10월2일~22일)는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깃발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인돌 유적·갯벌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막식, 특별전시, 국제학술대회, 환경캠페인, 유적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와 함께 '고창웰파크시티'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5 우수 웰니스관광지 88선에 이름을 올리고, '상하농원'에 위계이전 시설을 조성하는 등 최신 관광 흐름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첫발'

정읍시가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사업 타당성을 확정지으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이하수 시장과 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은 수성동 산 40-2번지 일원 약 4만5,000㎡ 부지에 들어서며, 공연장과 다목적 체육관, 전시·교육 공간, 주민 편의시설, 공연주차장 등을 갖춘 문화·체육·휴식·소통의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여가 활동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지난 4월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6%가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공연장과 체육관, 취미·예술교육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시는 복합문화공간이 생활 SOC 인프라 확충의 상징적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